

곡성군, 라오스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성공적’

30명 선발…2월부터 5개월 간 지역 농가 지원

농가 만족도 최고…“내년 사업 확대 추진 계획”

“곡성 농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 준 라오스 근로자에게 감사드립니다.”

라오스에서 곡성군에 계절근로자로 왔던 30명이 5개월간의 농가 지원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24일 군에 따르면 최근 라오스 므앙타파발 출신 계절근로자 출국 환송행사를 진행했다. 환송행사에는 이귀동 군수 권한대행과 김관술 곡성농협조합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해 무사히 근로를 마치고 고국으로 출국하는 계절근로자들을 격려했다.

곡성군은 올해 처음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했다. 라오스 므앙타파발 출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을 선발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곡성 전 지역 농업 현장에 투입했다.

총 공급 연인원은 2788명, 1022농가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딸기와 블루베리, 멜론 수확, 논·밭 제초, 배·사과 적과 등 농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지원해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 농가에 큰 도움이 됐다.

곡성군과 농협은 성공적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작업 현장에 투입하기 전 근로자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으로 지역 농가가 많은 도움을 받았고 농가 만족



곡성군은 최근 라오스 므앙타파발 출신 계절근로자 출국 환송행사를 진행했다.

도가 매우 높았다”며 “내년에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며, 근로여건과 체류환경을 정비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파종기와 수

확기 등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 위해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지자체가 선정한 운영주체(농협)가 근로계약을 체결해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승용 기자 photo25@gwangnam.co.kr

효령노인복지타운, 마을상생프로젝트 전개

‘함께 줍깅! 우리마을 한바퀴’

(재)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효령노인복지타운(이하 효령타운)은 24일 마을상생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인근 마을 주민과 타운회원, 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함께 줍깅! 우리마을 한바퀴’ 환경캠페인과 정화 활동을 펼쳤다.

줍깅은 줍다와 조깅의 합성어로 이날 줍깅행

사는 효령타운을 중심으로 인근마을 골목골목을 함께 돌며 담배꽂초, 생활쓰레기 등을 줍는 환경정화활동과 효령타운 회원을 대상으로 환경캠페인을 진행했다. 마을주민과 타운회원 및 직원들이 함께 동참한 이번 행사는 환경 문제에 대해 돌아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ESG 경영 실천의 의미를 더했다.

정경남 효령타운 본부장은 “효령타운에서는 2024년 신규 주력사업으로 이용자뿐만 아니라



(재)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효령노인복지타운은 24일 마을상생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인근 마을 주민과 타운회원, 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함께 줍깅! 우리마을 한바퀴’ 환경캠페인과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인근 마을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상생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더운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함께해주신 마을주민들과 효령

타운 회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ESG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효령타운이 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유)농업회사법인 국일항공은 최근 영광군에 에어컨 10대를 기탁하는 여름철 온기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농업회사법인 국일항공, 온기나눔 캠페인 동참

영광군에 에어컨 10대 기탁

(유)농업회사법인 국일항공은 최근 영광군에 에어컨 10대(600만원 상당)를 기탁하는 여름철 온기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일항공은 항공방제, 드론 교육, 드론 항공 촬영 등 드론 관련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2020년 7월 영광곳간 착한가게 145호점(호남국제트러스트관학교) 가입을 시작으로 2021년 200만원, 2022년 300만원, 지난해 에어컨 10대를 기탁하는 등 매년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매년 여름에는 영광군드론협회와 드론을 이용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모래미 해안 등에서

안전 감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신용남 대표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에어컨을 기탁하게 됐다”며 “국일항공은 군민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한 기업이기에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정성 군수 권한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는 신용남 대표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한 에어컨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폭염 취약계층 가정에 신속히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98@gwangnam.co.kr



전남도는 24일 시군 보건소장,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로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보건의로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남도, 보건의로 환경 변화 대응 방안 모색

보건의로정책 워크숍…디지털 기반 의료서비스 확대 등 논의

전남도는 24일 시군 보건소장,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로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선 전남 보건의로 현안인 의료자원 부족과 이에 따른 지역 내 필수의료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등 향후 보건의료의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교수의 ‘보건기관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주제 강연도 진행됐다. 이 교수는 강연에서 보건기관이 1차 의료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 방문보건, 커뮤니티케어까지 확대하는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전공의 사직, 의대생 집단 휴

학 등 공공보건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건기관의 비대면 진료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원격협진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자립생활을 유지하도록 의료와 요양 등 돌봄자원을 통합 제공하기 위해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대비 사전 대책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지역사회의 보건사업 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든든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PEOPLE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사학연금, 신규직원 대상 청렴교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최근 나주 본사에서 올해 채용한 신규직원 18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1부 교육에서는 신규자가 꼭 알아야 할 반부패·청렴 정책과 법령 학습을 위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임직원행동강령(직무상 갑질 금지 등)을 주제로 2부 교육에서는 사학연금의 일원으로서 공단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법규준수는 물론, 직무를 청렴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겠다는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고, 신고센터와 상담창구 이용에 대한 모의훈련으로 반부패 실천 의지를 다졌다.

류준열 사학연금 상임감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사학연금의 새로운 50년을 이끌어갈 청렴 인재를 양성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photo25@



나주애 줍깅 마실, 탄소중립 캠페인

빛가람호수공원서 쓰레기 줍기

나주시는 최근 빛가람호수공원 일원에서 시민 50여명과 함께 ‘나주애 줍깅 마실, 탄소중립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 사업 일환으로 도내 10개 시군에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과 COP33 전남도 유치를 위해 2년째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나주시는 자원순환교육지도사 평생교육과정 수료자 20여명과 에너지사랑광주전남지부, ESG환경실천지킴이 등 환경 단체들과 협력해 탄소중립 실천, 분리배출 장려 등 환경 보호의 중요성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나주=조현민 기자

인사

광주지방국세청 ◇과장급 전보 △익산세무서장 강삼원

◇초임 세무서장 △목포세무서장 이진재 △여수세무서장 이성일

본사방문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서용규 △제1부의장

△채은지 △제2부의장

△정다운 △운영위원장

△안명환 △행정자치위원장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명진 △교육문화위원장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작명

48년생 자녀의 일이 막히고 고민한다 60년생 동남쪽에 투자는 절대 안 된다 72년생 연인으로 우열한 심정에 빠지리라 84년생 뒷 사람을 공격하면 복이 들어온다 96년생 진취적으로 행동하라	49년생 의식스런 문서이니 경계하라 61년생 힘든 상황이 오고 있다 73년생 가 보아야만 남쪽 할 수 있을 것이다 85년생 무조건 돌아오는 대로 잡아 두라 97년생 학업 막혀 고민할 운	50년생 동쪽 물가로 가지 말것 62년생 유종의미를 거두도록 하라 74년생 하늘이 복을 주니 기쁨이 생긴다 86년생 말에 공을 들여야 득이 되리라 98년생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51년생 제약을 따를 수 있지만 문제는 없다 63년생 이익이 생겨 화색이 만만 하리라 75년생 머지않아 승진·진출하게 된다 87년생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때다 99년생 새 길을 선택할 때	52년생 구슬수에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라 64년생 허황된 일은 삼가 하라 76년생 일을 크게 벌이지 말것 88년생 가는 곳마다 기쁨이 생긴다	53년생 답답한 일이 풀리 것이다 65년생 원하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77년생 문서 거래 다음으로 미루자 89년생 필요 없는 생각 많은 하루
54년생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조심 66년생 소원을 풀 수 있다 78년생 후배와 상의하면 해결 되리라 90년생 조건에 따른 변수가 있다	55년생 변동하지 말고 기만하 있으면 67년생 억지로 이뤄지지 않는다 79년생 명쾌하게 해결하는 기쁨이 있다 91년생 고집을 너무 부리지 말라	56년생 귀하가 먼저 도와줘야 함이라 68년생 희소식 거래가 성사되는 운이라 80년생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마저 내어 주라 92년생 맞지 않아 마음이 조금씩 진다
57년생 뇌물은 적은 것이라도 돌려주라 69년생 일찍부터 서둘러야겠다 81년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93년생 새로운 계획이 필요할 때	58년생 무조건 돌아오는 대로 잡아 두라 70년생 갈등과 불화가 생길 것이다 82년생 서두르지 않아도 해결될 문제다 94년생 겉은 화려하나 실속이 없다	59년생 끝까지 참아야 할 일이 생긴다 71년생 통상적인 방법이 가장 무난하리라 83년생 남자로 인하여 오해를 받는 날 95년생 기분 좋게 금전 지출 하는 날